

미지근

3202 김민규

차갑던 소낙비가 내리던 날,
헤아릴 수 없이 뜨거운 슬픔이 내리던 날,
연고도 없고 애증도 없던 너와 이별했다.

내가 없는 내 하루는 크게 달라질 것 없지만,
내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차가운 눈물이 내린다.

비록 말 한 마디, 웃음 한 번 준 적이 없지만,
내 눈물은 아직까지 그리고 아낌없이 주고 있다.

내 슬픔은 네 곁의 사람들의 반의 반쪽도 되지 못하지만,
난 그 반의 반쪽도 너무 커 헤아리지 못하겠다.

큰 차가 운동장을 돌던 그날,
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미지근한 탄식과 눈물.
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다.
물론 나의 일방적인 그리움이겠지만 상관없다.
대가를 바라지 않는 슬픔이다.

이젠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.
너의 추억도 기억도 모르지만 넌 행복만 하면 좋겠다.
내 가슴 속 슬픔의 빗방울을 맞고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다면 좋겠다.
영원히 빛나는 학생으로 웃을 날만 남았으면 좋겠다.

(故 최찬빈 학생을 추모하며)